

■ 교육

부풀려진 고교 GPA, 대학들의 대처 방법은?



▲ UCLA Royce Hall 전경. 사진=shutterstock

미국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입학 사정 요소는 학교 내신 성적(GPA)이다. 미국 고등학교의 대부분은 국내 대학처럼 letter grade 즉, A~F로 평가 받는다.

그런데 고등학교 내신 성적 올려주기가 대학 입시에서 문제가 된 지 오래다. 대학들은 이런 현상 속에서 정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미국 고등학교들은 일반적으로 4.0만 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어떤 학교는 5.0 또는 6.0 아니면 7.0 스케일을 적용하는 곳도 있다. Letter grade로 A~F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A+, A, A-로 나눠서 세분화하기도 한다. 그래도 중국에는 4.0 스케일로 모두 통일해 평가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교들은 이른바 부풀리기를 통해 대거 A 학점을 준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대학들은 이런 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1. 학교 석차를 본다.

GPA와 더불어 학생의 학교 석차를 본다.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 3.9 학생이 석차에서 10% 밖으로 나간다면 이

학교는 점수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학생이 1% 이내라면 우수한 학생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이수 과목을 본다.

같은 11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난도가 높은 과목을 들은 학생과 쉬운 과목을 들은 학생은 가려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의 경우 Algebra 2를 들은 학생과 Pre Cal 을 들은 학생과 Cal BC를 들은 학생의 차이는 크다. Algebra 2를 듣고 성적이 3.98인 학생과 AP Cal BC 를 듣고 3.7을 받은 학생이라면 당연히 ApCal BC를 들은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3. 이수한 AP과목 수를 따진다.

같은 11학년 학생이라도 AP 6과목을 들고 GPA가 3.8인 학생과 AP 과목을 하나도 안 들고 성적이 3.8인 학생이 있다면 당연히 AP 과목을 많이 들은 학생에게 눈길을 줄 가능성이 높다.

4. SAT-ACT 점수를 통해 평가한다.

GPA 3.9 성적을 받은 2명의 학생이 있다고 하자. 한 학생은 SAT가 1,510점이고, 다른 학생은 1,390점이라면 누가 더 우수한 학생일까? 여기서 두 학생의 차이는 급격하게 벌어지고, 입학 사정관은 당연히 SAT 1,510점을 받은 학생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Test 옵셔널 제도 즉, SAT, ACT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들이 많아졌지만,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그럴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UC의 경우, 2024년까지 SAT와 ACT 점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학 입시에는 9학년 성적부터 반영 된다. 따라서 9학년부터 높은 성적을 받되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성적을 받아야 한다.

제주도 걷기 좋은 곳

선흘리 꽃자왈 동백동산

크고 작은 용암 덩어리와 나무, 덩굴 식물이 뒤섞여 숲을 이룬 곳으로, 난대 상록활엽수의 천연림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아 지방기념물(제 10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2011년 동백동산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고 2014년에는 세계지질공원 대표 명소로 지정되기도 했다. 선흘리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주체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습지 생태교육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며 생태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동백나무가 많아 동백동산으로 불리며 1월부터 6월까지 동백꽃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필자가 방문한 6월 2일 동백꽃은 다 지고 한 송이도 눈에 띄지 않았다.

꽃자왈의 ‘꽃’은 수풀을 의미하는 제주말이고 ‘자왈’이라는 말은 열기설기 엉성한 돌무더기로 이루어진 지형 위에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켜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꽃과 자왈이 합쳐진 꽃자왈은, 엉성한 돌무더기 지형에 나무와 덩굴 등으로 이루어진 숲을 가리킨다. 동백동산은 바로 약 1만년 전 형성된 용암대지 위에 뿌리내린 꽃자왈에 있다.

선흘리 꽃자왈 지역에는 부분적으로 용암동굴, 용암언덕, 용암습지 등의 지형이 형성되었는데, 특히 점성이 낮은 용암(파호이호이 용암)이 비교적 넓게 대지를 덮어 암반으로 이루어진 습지가 여러 곳에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런 특이한 지형의 가치와 생태적 가치가 인정되어 람사르습지로 지정됨은 물론, 세계지질공원 대표 명소로 지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동백동산을 찾고 있다.

* 람사르습지: 생물 지리학적 특징이 있거나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람사르 협약’에 의해 지정된 습지. 람사르는 이란의 한 도시로 이곳에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람사르 협약이 체결되었다.

총 탐방거리는 5.1km, 언덕이나 구릉이 없는 평지로 약 1시간30분 정도면 한 바퀴 돌 수 있다.

- ▶ 주소: 제주시 조천읍 동백로 77 (조천읍 선흘리 914번지)
- ▶ 전화: (064) 784-9446



▲ 선흘리 꽃자왈 동백동산. 사진=타운뉴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신규 케이스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및 접수 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